

#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李 宇 樂\*

◇ 目 次 ◇

- |               |               |
|---------------|---------------|
| I. 서 론        | III. 김정일의 문예관 |
| II. 사회주의의 문예관 | IV. 결 론       |

## I. 서 언

### 1. 문제제기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째, 문학예술은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거울이라는 것이다.<sup>1)</sup> 둘째, 예술은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 사회체제를 선도하고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 때로는 사회가 문학예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예술과 사회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 문학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기계적 반영론이라고 한다.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학예술도 장르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다르고 같은 장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작품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세사회의 문학예술은 정치나 지배집단에의 예속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의 문학예술은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르와 시대에 따라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의 체제적 특성도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학예술은 체제와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도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가 체제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나,<sup>3)</sup>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체제에서는 다양한 문학예술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소한 외연적으로는 문학예술의 독자성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여진다.<sup>4)</sup>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체제의 문학예술은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념적 도구로 간주되어 국가가 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창작과정에 국가나 당이 직접적으로 간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문학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2) 시와 영화가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순전히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계역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걸작들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들은 동시대에 많이 유포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작품들은 후대에 와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작품들은 광범위한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작품들은 평론가나 지식인 혹은 지배층과 같이 특정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3) 그람시(Gramsci)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문화적 혜계모니를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 Bryan S.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rgy Allen & Unwin, 1980), pp. 11~12.

4)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문학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문학예술을 주도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이 발표되고 수용되고 있다.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학예술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문학예술작품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자율성 내지 독립성은 대단히 약하다. 셋째, 정부보다는 당이 문학예술활동을 통제하며, 최고지도자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문학예술작품의 사회적 기능, 특히 정치사회화의 매체로서의(agency of political socialization) 기능이 강조된다. 다섯째, 부분적으로 문학예술작품이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체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이상향을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지도자 내지 지배집단의 교체에 따라 문학예술작품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까닭으로 대중문학예술과 고급문학예술을 구별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일성도 집권초부터 문학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집권이후 반대파벌과 권력투쟁을 하던 시기나, 1960년대 이후 ‘주체’의 기치 하에 독자노선을 주장하던 시기에 문학예술을 지배이념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더욱이 권력을 승계받고 있는 김정일은 당의 선전선동분야(과장 및 부부장 1967~1971;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 1973~1980) 및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부장 1977~1973)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문학예술의 정치적 역할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해서는 문학적이고 예술학적 분석보다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문학예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환경이 되는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학적으로 문학예술을 분석하면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의 문예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의 문학예술관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예술이 사회 특히 정치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예관을 분석하여 북한 문학예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sup>5)</sup> 문예관 분석을 통해 김정일과 그의 사상 그리고 그의 통치체제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연구에서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류단계나 통합단계에서 사회적 동질감을 회복할수 있는 중요한 토대의 하나가 문화 교류나 통합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한 적극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초연구로서 유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방법론

문학예술관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예술인에 대한 문예관은 특정 사조에 대한 태도나 간여 정도 등을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예술인은 아니고 정치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문예관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예술의 목표, 정치·사회적 역할, 표현양식과 창작방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김정일의 문예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그가 발표한 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김정일의 각종 문건은 김일성과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김일성은 「저작집」, 「선집」 등으로 모든 문건이 정리되어 있는 반면 김정일은 「김정일선집」이 1992년 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5) 1992년에 출간된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중에 문학예술에 관련된 것이 18편에 이른다.

6) 김정일의 명의로 나온 글들이 자작이냐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나 그의 공식적인 문학예술관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3권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저서 중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집」 1권에서 문학예술을 다룬 논문들과 「조선중앙 연감」 등의 자료에서 발췌한 글들을 중심으로 분석코자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도하에 창작되었다고 평가되는 주요 작품들을 그의 문예관을 이해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할 것이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은 그것이 배태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예관도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등장한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관하여 그의 문예관을 분석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원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 변이에 따른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와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문예관과의 비교 분석방법도 김정일의 문예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인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김일성의 문예관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일의 문예관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 II. 사회주의의 문예관

### 1.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sup>7)</sup> 토대로 모든 작품들이 창작

7)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쓰여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기념비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1932년 10월 고리키의 집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스탈린이 “만일 예술가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묘사하려면, 사회주의를 향한 삶이 무엇을 냉는가를 관찰하고 지적해야만 한다. 이런 작품이 바로 사회주의 예술인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될 것이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C. V. James,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서울: 녹진, 1990), pp. 130~31.

되어지고 문예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세기 후반의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여행기’에 발생하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시기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예술양식으로 채택되었다.<sup>8)</sup>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적인 특성은 앵겔스가 이야기하는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한다”라는 명제에 축약되어 있다.<sup>9)</sup> 이는 문학예술 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근본적으로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학예술작품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특히 현실의 문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다른 문예사조보다 반영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여타의 리얼리즘론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묘사나 비판적 인식이 아닌 새로운 전형의 인간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적인 작품은 새로운 세계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세계관은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경향성을

8)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10~11.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앵겔스의 발자크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낙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앵겔스의 발자크론 – ‘비판적 리얼리즘/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분법과 관련하여,” 실천문학 편집위원회 엮음,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서울: 실천문학사, 1992) 참조.

9) Lee Baxandall & Stefan Marawski, trans.ed., *Marx &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St. Louis: Telos Press, 1973), p. 114.

10)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생각하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신승렬 외 역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I」(서울: 일월서각, 1988), pp. 268~269 참조.

강조하며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다른 어떠한 문예사조보다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며 목표도 뚜렷하다.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작품의 창작과 문예정책에서도 특성을 보인다. 작품들의 창작과정에서는 장르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① 민중연대성 ② 계급성 ③ 당파성 ④ 혁명적 낭만주의 ⑤ 궁정적 주인공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sup>11)</sup> 문예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당파성의 고수 그리고 당(黨)의 개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sup>12)</sup>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성은 하나의 특정한 문예사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배이념 확산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사회주의 국가인 제3 세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대항이데올로기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위하여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체제통합적 성격이 강하다.

## 2. 김일성의 문예관

북한의 문학예술도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기본적인 창작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1)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p. 26.

12) 사회주의 국가의 문예정책은 정권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스탈린 시대와 그 이후, 중국의 모택동 시대나 문혁시대와 그 이후의 문예정책은 동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항재, “소련 문예정책의 전개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pp. 45–53;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41–44.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변하였다기 보다 당의 개입의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인류가 축적한 문학예술창조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한 가장 선진적인 창작 방법으로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오늘의 현실묘사에서 미래의 싹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혁명적 랑만성의 원칙을 그의 유기적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다.”<sup>13)</sup>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특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었다.”<sup>14)</sup>

따라서 비록 북한의 문예관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보다는 김일성의 문예관이 문학예술의 창작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 문학예술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민족문화와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민족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문화와 생활기품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sup>15)</sup>

김일성의 이러한 문화관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곧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 된다. 김일성은 전통문화에 대

13)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37.

14)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498.

15) 「김일성저작선집」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p. 381.

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적 태도를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의 계승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우리 나라 민족문화유산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것을 보존관리하며 계승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며 또 어떤 일군들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것이라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다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의 것을 무시하는 민족허무주의적 경향이며 후자는 과거의 진부한 것까지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 경향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유해로운 편향입니다.”<sup>16)</sup>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서 전통문학을 재해석하거나 전통악기의 개량이 활발한데 이러한 시도들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민족문화도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가건설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봉건적 잔재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한 식민주의적 잔재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내용과 형식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김일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학예술에서도 ‘항일혁명문학예술’이 강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

16)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283.

17) 고음단소, 단소,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등이 새롭게 개량된 전통악기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들은 실제로 서양악기들과 같이 편성되어 각종 음악연주에 쓰이고 있다. 서연호, “북한의 혁명가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주년기념 북한의 문화예술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통일원, 1990), p. 101.

을 발전시킬데 대한 지도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사업을 확고히 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건설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sup>18)</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이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활동을 본받자는 것으로 맥스-레닌주의 문예론 혁명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것을 조선의 상황에 적용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원칙하에 창작된 작품들은 주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운동을 하던 시기의 일화들을 다룬 것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혁명가극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조국의 별’ 연작 등을 들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내용에 있어서도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창작과정에서도 집단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체성이 강조된다. 집체적 창작방법은 빨치산 시절에 전문적인 창작자의 존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창작방법인데 이러한 집체적 창작방법이 대중들의 감정이나 사상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근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sup>21)</sup> 그러나 이외에도 항일혁명문학예술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문예관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체적 창작과 대중성의 강조를 통하여 문학예술의 보편화를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18) 「문학예술사전」, p. 922.

19) 「문학예술사전」, p. 924.

20) “지난날 항일빨치산에는 전문적인 작곡가가 없었고 거기에서는 싸우는 청년들이 모여서 집체적으로 작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 노래는 대원들의 감정에 맞았으며,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대중들 자신이 작곡하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64.

21) 실제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주요 작품들은 김일성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홍보되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지대장의 이야기」이다.

22) 문학예술에서 대중성의 강조는 군중예술을 중요시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일성은 “군중예술은 사상적으로 전전하면서도 소박하고 락천적이여야 합니다. 농촌예술소조들은 간단한 사실을 잘 형상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을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여야 합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통이 북한사회에서도 대체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북한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족적 형식이 강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문학예술작품들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김일성의 문예관은 북한체제의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체제와의 연결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특히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과 개인에 의 예속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북한에서는 당이 직접적으로 창작활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지도가 작품활동의 기본이 된다. 김일성의 교시는 문학 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학예술의 전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시 내용도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북한의 문학예술의 획일화 정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중요시하는 주인공의 정형화 모델은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의 항일투사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이상향을 강조하는 것 못지 않게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비판이 중심적 테마로 각종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III. 김정일의 문예관

#### 1. 김정일의 문예활동

김정일은 22세이던 1964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

---

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중예술의 사명입니다”라고 말하고 “몇몇 전문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근로대중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고 대중의 지혜가 활동되여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좋은 예술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김일성,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p. 54~55.

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1966년 당 선전선동부의 지도원이 됨으로써 예술분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후 1968년에는 당선전선동부 영화 예술과장이 되고, 1969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된 후 1972년에는 부장의 지위에 오른다. 이어 1973년에 당 중앙위의 조직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된다.<sup>23)</sup> 이와 같이 1974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되기까지 김정일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김정일은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68), “혁명에 필요한 명곡을 많이 창작하자”(1969),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1970),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1), “피바다식 혁명가극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 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발표하자”(1971),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2),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1972) 등의 논문을 발표하고 1973년에는 그의 영화예술과 문학사상을 집약되었다고 하는 저서 「영화예술론」을 출판한다. 김정일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문학예술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작현장에 참여하는 등 문학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된다.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981), “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1),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86),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 등의 문학예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도 「미술론」 및 「건축미술론」을 출판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새로운 대부작 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sup>24)</sup>

23) 박규식, 「김정일평전」(서울: 양문각, 1992), p. 99.

24) 「로동신문」, 1992. 2. 6.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경우는 문학예술분야가 체제와의 연관성이 깊으며 동시에 문학예술을 포함 한 선전전동 분야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부문이라는 점이다. 권력 승계 결정 이전이나 과정에서 문학예술분야를 관할하는 선전선동 부분에서 일함 으로써 김정일은 개인적 업적을 쌓고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둘째,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문학예술 특히 그 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관심은 취미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다.<sup>26)</sup>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문학예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 으나,<sup>27)</sup> 김정일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더욱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 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주체문예이론

아버지인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고 있는 김정일은 이념적 성향이나 사 상적 특성 그리고 정책 방향에서 김일성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 개인적인 정치적 기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원하에 권력을 획득한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을 답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문학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입장은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5) 김정일이 개인적 역량이 떨어져서 선전전동분야나 문학예술분야에 종사하였다라는 주장 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문학예술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기로부터 1960년대의 중소분쟁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념투쟁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념분야와 관련이 있는 선전선동과 문학예술 분야는 권력구조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6) 김정일은 1만5천여편의 필름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사실 시설이 되어있고 그는 거의 매일 밤 영화문현고에서 필름을 가져다가 감상한다고 한다. 최은희·신상옥, 「최은희·신상옥 납북수기：김정일 왕국」下 (서울：동아일보사, 1988), p. 108.

27) 레닌이나 모택동 그리고 스탈린도 모두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주체문화이론을 주장하고 있다.<sup>28)</sup>

주체사상은 1955년에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통치이데올로기라고 설명된다.<sup>29)</sup>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나 이를 심화 발전시킨 사람은 김정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sup>30)</sup> 또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주요 논문의 작성자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문예관의 토대는 주체사상이며 문학예술의 목표는 유일사상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사업의 총적 방향에 따라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up>31)</sup>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구현하고 유일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문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두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김정일은 문학예술은 일차적으로 김일성의 형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주체사상이 196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다고는 하나 1970년대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이후 주체사상이 더욱 강조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도 권력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기본적인 해설서로 1974년의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김정일이 직접 저술하였다고 발표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29)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에 김일성이 행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상사업...”은 주체사상의 본질을 밝히는 기초 문건으로 북한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사상사업...” 연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작된 문건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한 것이 1930년이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 7.

30) 「로동신문」, 1992.2.15.

31)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05.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 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화한 문학을 말합니다.”<sup>32)</sup>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깊이있게 그리는 것입니다.”<sup>33)</sup>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며,<sup>34)</sup> 이를 위해서는 김일성의 항일혁명시기의 활동을 재규명하거나,<sup>35)</sup> 김일성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는 작품들을 재창작할 필요가 있게 된다.<sup>36)</sup>

둘째, 주체사상이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학예술에서도 특수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관현악곡은 구라파적인 형식이므로 대신에 민요와 같은 전통적인 양식으로 음악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은 역사와 풍습, 습관과 성격이 다르며 그것으로하여 생활감정과 정서도 다릅니다. 민족적 형식은 민족의 생활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고유한 형상수단으로서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굳어집니다...인민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예술형식을 갖춘 음악으로서는 민요를 들수가 있습니다...구라파식으로 서곡이요, 교향시요, 교향곡이요 하는 것을 적지 않게 썼는데 그런 형식의 관현악작품은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작품의 이름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sup>37)</sup>

민족적 형식의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혁명가극을 민족가극이라는 명분에

32)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112.

33)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299.

34) “4·15창작단을 내을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244.

35) 「불멸의 역사」 연작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6) 「꽃파는 처녀」가 한 예가 된다.

37)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1, pp. 210 12.

의하여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38)</sup>

김정일의 문예관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정일이 주도한 작품들로는 소설로서 「불멸의 역사」총서, 영화로서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다부작, 그리고 가극으로서 「영광의 노래」를 들 수가 있다.<sup>39)</sup> 그리고 문학을 담당하는 「4·15창작단」, 혁명가극을 담당하는 「피바다극 단」, 무대예술을 담당하는 「만수대예술단」, 미술을 담당하는 「만수대창작단」 등도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통해 당의 유일적 지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이를 단체들은 김정일의 지도하에 김일성의 위대성을 고양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거나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에 창작하였다고 하는 주요 작품들을 재창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3. 종자론(種子論)

김정일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문예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종자론이다. 종자론은 1972년에 발간된 「문학예술사전」에 처음 언급된 것이나, 1973년에 김정일이 폐낸 「영화예술론」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이후 발표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론에 따라 창작되고 평가받고 있다. 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종자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며, ②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에 대한 체험과 연구에 기초하여 그가 해명하려는 근본문제를 형상의 요소들과 유기적 연관 속에서 골라잡아야 하고, ③ 종자는 주제와 소재에 모두 관련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소재선택, 주제설정, 예술적

38) 서연호, “북한의 혁명가극,” p. 96.

39)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항일 혁명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0) 박규식, 「김정일 평전」, p. 215.

형상 창조의 전과정에 관련되며, ④ 소재란 아직 예술적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생활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며, ⑤ 주제란 사상·미학적으로 전환된 생활 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고, ⑥ 소재·주제·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개념이 요구되어지는 바 이것이 바로 종자인 것이며, ⑦ 종자에 있어서 기본은 사상에 두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고, ⑧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 전일적으로 연결된다 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⑨ 종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인 것이며, ⑩ 좋은 종자를 고르려면 사물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하고, ⑪ 종자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의 보장은 종자의 예술적 의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⑫ 예술적 가공에 있어 예술적 세부들과 형상들을 종자에 집중시키고 복종시킴으로써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⑬ 주인공의 형상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제기하는 기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알맞는 위치에 놓고 성격적 특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종자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김일성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나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강조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품의 모든 부분들이 핵심적 사상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의 세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재까지 제한받게 된다.

둘째, 종자를 김일성과 당의 교시로 규정함으로써 획일화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종자를 선택하기 위한 작가들의 정치적 안목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작가들에게 김일성이나 당의 교시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

41)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p. 172~188.

러한 과정에서 작가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수 있다.

#### 4.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

김정일의 문예관은 그가 처음 선전선동부문이나 문학예술부문에서 종사하기 시작하였던 1960년대나 권력승계자로 부각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여진다.

1960년대에 김정일은 원론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김일성의 문예관에 토대를 둔 문예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남한, 반미 등 반자본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으나 “혁명문학예술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담아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훈련시킨는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sup>42)</sup> 생각하는 등 원론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특히 종자론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더욱이 김정일이 속도전을 주도하면서, 5대혁명가극과<sup>43)</sup> 5대 혁명연극을<sup>44)</sup> 지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수령의 형상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전히 종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종자의 기본 문제로 인간과 생명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그려야 합니다...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기초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그려야 합니다. 우리시대 인간의 성격은 바로 이렇게 형상되어야 지난 시기의 작품에서 보여준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형의 인간전형으로 될수 있습

42)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김정일선집」 1, p. 50.

43) ‘괴바다’(1971), ‘꽃파는 처녀’(1971), ‘당의 참된 딸’(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44) ‘성황당’(1978), ‘혈분만극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꽃파는 처녀 10주년 기념 및 700회 기념 경축야외공연 경축대회’(1988).

니다....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형상이 생명으로 된다면 인간형상에 활력을 부어주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생명의 핵은 종자입니다.”<sup>45)</sup>

따라서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구현하고 이를 일상적 세계에서 찾아야하며 “주체의 문예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새로운 문예학설로서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위주로 보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창작의 근본원리”가 된다.<sup>46)</sup>

시기별로 김정일의 문예관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김정일 자신의 위상변화이다. 즉, 1960년대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할 때는 문화예술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기존의 김일성 중심의 문예관에 충실한 작품 창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수령론을 강조하거나 유일사상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의 성격변화에 따라 김정일의 문예관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중소분쟁이후 주체의 기치하에 독자성을 강조함에 따라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였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예관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체사상의 성격변화가 북한이 처한内外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김정일의 문예관도 북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부분적으로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관점이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45) “연극예술에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p. 74 –76.

46) 「로동신문」, 1992.4.3.

47) 최근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주체사실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류인호,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가장 옳은 창작방법,” 「조선예술」 434 (1993, 2), p. 56.

근본성격이 변화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배원칙, 기본적인 문학예술이 수행하는 정치교양 수단으로서의 역할,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유일사상의 고취, 그리고 민족적 형식의 강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김정일의 문예관에 등장하고 있다.

### 5. 김정일 문예관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통과 김일성의 문예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반제국주의(반미) 및 반자본주의(반남한)를 강조하기도 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부각시키기도 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김정일이 생각하는 문학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정치교양(정치사회화)이 된다. 즉 문학예술은 북한 인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혁명적 교양과 계급적 교양’을 쌓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장르 중에서 김정일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예관이 집약된 것이 「영화예술론」이며, 개인적인 취향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sup>48)</sup> 그의 선집 1권에 게재된 논문의 총 편수가 46편이고 이중에서 문학예술에 관련된 논문이 18편인데, 영화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7편에 이른다. 그리고 김정일 자신도 영화예술분야에서부터 혁명을 먼저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김정일은 영

48) 영화를 중요시하는 것은 레닌이래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저발전되어 문맹률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영화가 가장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문학예술장르에 비해 영화는 획일성이 보장되고 대량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교들의 대부분은 소련에서 발전되었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일년에 평균 150여편의 영화를 감상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병남,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조선영화」 237 (1993, 3) 참조.

화뿐 아니라 음악이나 연극 그리고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김정일은 동일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중복적인 창작을 장려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여러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하여 문학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0)</sup>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는 주요 작품들이 영상, 가극, 소설, 연극으로 재창조되고 있다.<sup>51)</sup>

#### IV. 결 론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관이나 김일성의 문예관에 비해서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형화의 대상이 항일유격대원 특히 김일성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전형화를 강조하고 이를 당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다양한 조건하에서 다채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상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추구하는 문학예술은 보다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적 형식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족적 형식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sup>52)</sup> 김정일은 구체적으로 민족적

49) “연극예술에 대하여,” p. 61.

50) “불후의 고전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1, p. 480.

51) 「피바다」는 1969년에 영화로, 1971년에 혁명가극으로, 1974년에는 소설로 재창작되었고 「자위단의 운명」은 1970년에 영화로, 1974년에 가극으로, 1973년에 소설로 재창작되었다. 김문환, “북한연극의 특징: 체제적 접근,” 권영민 외,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336.

형식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작품을 창작할 것을 요구한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민족형식이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으나 김정일이 주도한 북한의 문학예술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름대로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일의 문예관은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모택동의 문예관에서도 드러나지만,<sup>53)</sup> 김정일은 북한체제가 처한内外적 환경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도 문예관을 변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넷째, 김일성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김정일도 집체적인 창작을 중요시 여기며, 대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일이 주도하였다고 하는 「불멸의 역사」, 「조국의 별」, 「민족과 운명」 등의 작품은 모두 10부작 이상이다. 이와 같은 다부작 내지는 대작들은 동일 주제에 대한 반복학습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집체적 창작은 문학예술작품에 일반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문학예술작품들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가 냉전적 사고에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기존의 북한의 문학예술 및 문화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도 북한 문학예술의 정치적 파종속성을 강조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문학예술이 정치에 좌우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체제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이 문학예술의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자론에서 잘 나타나는 유일적인 사상성의 문제는 문학예술이 추구하여야 할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성이 있다. 이러할

52) 陳繼法, 叢成義 역, 「사회주의 예술론」(서울: 일월서각, 1979), p. 141.

53) 모택동, “연안문예강화,” 이동연 역, 「연안문예강화 外」(서울: 두레, 1989), pp. 28 ~29.

경우 비공식적인 문학예술활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학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어 전반적인 문학예술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결합하는 작품들을 강조하거나 비교적 대중성이 있는 「홍길동」, 「임꺽정」 등의 전래의 문학작품들을 1980년대 후반부터 제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일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학예술을 생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서 집체적 창작 등의 형식적 특징은 현대 자본주의 문화에서 제기되는 문화의 일방적 수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체제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김정일이 주도하는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임은 더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남북한간의 통합문화의 성격과 이의 달성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